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北 김정일 사망, 북한 체제 어디로 가나

"평양의 봄" 가능성 주목, 권력투쟁 등 혼란 우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60:19-20)

북한 국방위원장으로서 1998년부터 13년간,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김정일의 급사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유일 영도자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북한은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 등 일부 해외 언론들은 19일 오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바람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뒤늦게 북한에도 상륙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시민봉기로 촉출된 아랍의 독재자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일단 병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 내부가 극도의 불안정성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은 아랍국가들과는 달리 그동안 반체제 인사가 거의 없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로서는 '평양의 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후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여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이양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하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에 불과한 데다 후계를 정당화할 만한 이렇다 할 업적을 내세우기도 어렵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며 위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많다.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정 기간의 조문 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 권력 내에 포진한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숙청 등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국가장 의위원회 공보' 제목의 보도를 통해 28일 영결식 거행등의 일정으로 오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한다며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출처:연합뉴스 종합).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2:1-2)

북한의 결국을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민주혁명으로 아랍의 독재자들이 축출됐던지 병으로 인해 물러났던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통치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불어 닥친 민주화바람을 몰아 평양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파하시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선포합니다. 이때를 틈타 악을 도모하는 사단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철장으로 질 그릇같이 깨뜨리는 전 세계 교회의 기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고 북한의 각 영혼들에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이 됨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여, 너희는 지혜를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라. 북한이여! 여호와와 영광으로 일어날지어다! [기도 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십자가만 사랑하며 3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 기획 4면

- 신년사
- 특별기고, '하나님 나라는 전쟁중' 가라, 가서 전쟁하라!



김용의 선교사 컬럼

“믿음이 결론 되고, 진리가 결론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완전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셨던 날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 4:10)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경험과 열정에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애쓰고 힘들어하는 삶을 끝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예비하심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 이루신’ 완전한 부르심을 역사상에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기 까지,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시기를 통틀

어 하나의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구원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야 40년의 기간은 죽음에 넘겨져야 할 우리 자아의 실체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기간 동안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찌들은 더러운 죄의 습관들, 자기를 추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라는 끔찍한 환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병든 자기 자아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광야에 엎드려 죽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기간에 병든 자아를 버리는 믿음이 필요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취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취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



으로는 가나안 7족속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이 결론이 되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애굽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셨지만, 오직 100%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요단강을 가르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 믿음의 순종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출애굽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버려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시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1)

비록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옛 습관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이미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100%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의 찬양이었다’

북한/이순옥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후7:4**

“그리스도인이 되고서야 비로소 그 죄수들이 노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이순옥은 당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7년에서 1992년까지 감옥에 수감되었다. 다행히 그녀는 나중에 남한으로 도망쳤고, 훗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북한의 감옥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기억이란 단순했다. 처형을 당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그녀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감옥에서는 죄수들끼리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그리스도인 죄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아멘!”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간수들이 아무리 강요해도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간수들이 더욱 격노하여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믿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고 간수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들은 구타와 발길질이 거세질수록 더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수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전기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찬양이었다. 그 귀한 성도들의 찬양이 그녀의 영혼에 씨앗을 뿌려 마침내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이었다.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평가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신자들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마음으로 메모한다. 이 무언의 관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기라도 하면, “자기들이 별 수 있어? 다 똑같은 인간인데!” 라는 평소의 지론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히 넘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와 밝게 웃으면 고개를 갇우뚱거리고, 신자들이 우는 대신 박수를 치면 깜짝 놀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슬픔 중에 찬양을 하면 설명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저절로 이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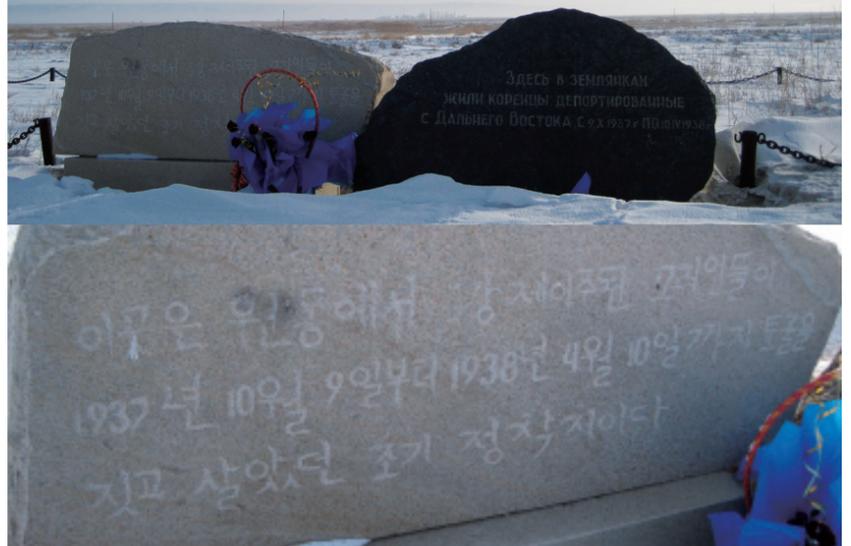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무후무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기쁨의 분(本)을 보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정제)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카자흐스탄, 고려인 지하토굴 거주지 기념비 앞에서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허허벌판에 두 개의 바위가 웅장하게 놓여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납작한 돌 판에 누군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비뚤거리는 글씨로 새긴 기념비이다.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원동은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011년 1월 선교관학교 카자흐스탄 팀이 남동부 알타이 지역에서 킴켄트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잠시 방문했던 곳이다.

영하 수십도의 살을 에는 듯한 한겨울을 이런 곳에서 버텼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안쓰러움과 울컥 치솟는 회한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육신의 인생이 그렇게 육신의 고초를 겪고,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그렇기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멈출 수가 없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22:17)

- 사진제공 : WMM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

옛 사람으로는 안된다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때 사셨다가
지금은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라
내가 죽는 것은 예수로
예수로 살기 위한 것

”

이 내용은 지난 2011년 12월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둘째날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십자가 복음 앞에 섰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직 안 죽었나보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죽은 자로 살아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히6:1)는 말씀을 주목해보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道)의 초보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전제로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완전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복음은 실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보자. 한국교회만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이 모든 현상의 출발점에 1907년의 대부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07년은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놓았다. 그 기초 위에 서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왜 1907년을 구하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1907년의 부흥을 새롭게 구하기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1907년 대부흥을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道를 살아내는 데 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알고 있는 데 왜 살아지지 않는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옛 사람으로는 안된다.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나의 옛 생명과 옛 삶을 끝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옛 생명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복음은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복음은 능력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실제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마28:20). 사명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주셨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갈2:20, 롬15:18). 예수님은 한때 사셨다가 지금은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이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모셔 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고 하셨다(계3:20). 예수님과 동행은 친밀하고 황홀하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라. 이것을 매 순간 의식하라. 하나님께서 사실을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이루셨다. 말 한 마디, 마음의 감정 한 토막도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 내가 죽는 것은 예수로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죽는 것은 기쁨 그 자체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중요한 훈련이다. 훈련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우리 주님과 관계, 친밀함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누리게 된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감정이나 가질 수 없다. 이렇게만 하고 단 한 달만 살아보라. 일 년을 살아보라.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 -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교회는 살아있다

North Korea



면적 12만km²(1.2배)
 인구 2천399만(0.5배)
 도시화 63.4%
 종족 한국인 99.8% 중국인0.2%
 종교 무종교 69.3% 종족종교 15.5%
 기타 13.2% 기독교 1.48% 불교 0.4%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평양에는 전시용 교회가 3개 있으나,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노동자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 버리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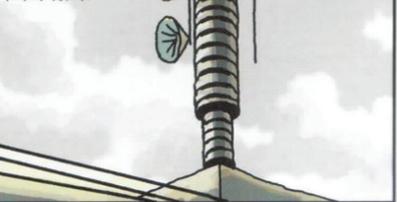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3년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2002년 현재 식량난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난민이 줄을 잇고 있다.



꿈어 죽느니...

범퇴!

아직도 북한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디오 방송과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통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있다.



<출처:만화 열방기독교정보, 넥서스CROSS>

선교브리핑

이란, 나다르카니 목사 판결 1년 연기

-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란의 요셉 나다르카니 목사 사건이 국제적 주목을 받아, 이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기독교신문이 전했다.

지난달 15일 프레젠티트루스미니스트리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32세의 가정교회 리더 나다르카니 목사는 ‘변절자’라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라쉬 지방 법원에 재고를 요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쉬 지역 지방 법원은 나다르카니 목사에게 ‘개종하기 전에 무슬림이었다면, 현재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경우 판결을 재고할 방법이 있다’고 뜻을 전달했으나, 그는 총 네 번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라쉬 지역 목회자였던 나다르카니



목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라는 이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2009년 10월 13일 체포됐다. 한편 이란은 최근 오픈도어가 발표한 최악 종교 박해 국가 2위에 올랐다. 1위는 북한, 3위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선교정보 네트워크

열방용 단기선교사 모집

선교인력 및 자원은행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등에 파송할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 지역과 모집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 = ▶북인도 지역에는 순회기도팀으로 지원할 가정 및 2인 이상 지원자. ▶네팔은 현지신학생 기숙사 사역을 위해 간단한 생활영어를 할 수 있는 형제. ▶인도 데라둔에는 고아원교사 및 예배인도자. 우다이뿌르에는 기도 및 태권도 사역자. ▶필리핀에는 어린이 자매 교사들

모집한다.
- 아프리카 지역 = ▶케냐에는 센터관리자 형제1명, ▶감비아에는 태권도 사범을 초청한다.
- 남아메리카 지역 = ▶온두라스에는 학교관리 및 다양한 영역으로 가정 및 2인 이상 모집하며,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교사 및 현지 학원사역 동역자를 모집한다. 문의 :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 070-7417-4156~7, 010-2389-4156. jsministry@hanmail.net

신년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부흥이 시작됐다

구약시대, 성전회복 역사의 주요한 한 국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느헤미아가 추진한 52일간의 성벽 재건 역사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감격 그 자체였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벤허 영화 시사회에서 '주여!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라고 감격했다지만, 느헤미아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식민지국가 바벨론의 어전 술 관원장 출신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결과가 성취되었기에 할 수 있었던 오직 이 한 마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벽완공 기념감사예배 이후 그는 예루살렘을 잠시 비웠다. 그 사이 자기 잇속 챙기기에 능수능란한 모리배(謀利輩) 도비야는 제사장을 꼬드겨 하나님의 전의 한 복판에 동지를 틀었다. 지도층 인사인 민장(民長)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나 찬양대원들의 몫을 주지 않아 하나

님의 전을 수종 드는 이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떠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사라져 버리도록 방치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안식일 준수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며칠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아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순결을 지켜야 할 거룩한 백성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내팽개쳐버렸다는 사실이 었다.

느헤미아의 개혁은 시작됐다. 주의 날이 임하여 모든 부정이 불의가 심판을 받듯이 도비야가 교묘하게 잇속을 차리던 성전에 있던 정결치 않은 세간 집기는 모두 폐기 처분됐다. 창고지기를 세워 지도자들이 남



부했어야 할 세금을 징수, 밀린 임금과 상여금이 분배되며 주님의 공의가 임했다. 문지기를 세워 안식일에 성문을 열지 않도록 할뿐아니라 성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다. 이방여인과 통혼한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이라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택한 신부로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00여년전 한반도에 임한 복음의 능력은 느헤미아 성벽 재건 역사 그 이상의 지각대변동을 가져왔다. 오랜세월 당연시 여겨져 온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땅에서 펼쳐진 복음의 능력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세계복음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신적인 드라마(divine Drama)였다.

그리고 또 다시 100여년. 왕궁을 떠나 며칠 말미로 예루살렘에 되찾아온 느헤미아가 본 충격 그 이상의 황폐함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그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기 어려운 총체적 부패와 음란함. '부패의 완성'을 의미하는 고멜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린 성도들의 방탕함과 교회의 타락상.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기에 가슴을 찢고 무릎 꿇고 겸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뿐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새로운 출발선을 밟고 새해 새 아침을 맞는다.

김강호(발행인 겸 편집인)

특별기고

‘하나님 나라는 전쟁중’ 가라, 가서 전쟁하라!

전쟁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오염시킨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말라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기획부터 대대원의 막이 내리기까지 일련의 시간을 가슴 졸이며 준비하고 섬겨온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섬김이의 고백을 들어본다.<편집자>

다시복음앞에, 대장정이 끝났다. 2011년 1월,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행동강령의 초안이 확정되던 그 날을 기억한다.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던 동맹 회원단체장들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감격으로 사로잡힌 주님은 우리가 믿는 바와 또한 믿었다면 그에 따라 행하여 할 바를 널리 선포하는 그 일의 당위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교회와 온 열방 앞에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널리 선포할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허락하셨다. 전국 7대 도시를 오가며 섬김 전국 순회집회와 청소년 문화복음집회, 뮤지컬

'가스펠', 신학포럼, 목회자 세미나. 어느 단체나 교회도 자신의 이름대신 기꺼이 동맹군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했고, 조건없는 섬김으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설었던 이름,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된 '복음기도동맹'으로 마침내 연합하게 되었다.

소대장, 대대장, 군량미, 군복...용어부터가 생소했던 다시복음앞에는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그들이 연합된 군대임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과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므로 지금도 열방에서 승리하고 있는 동지들의 승전보고를 나누고자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병기인 '복음과 기도' 얼마나 명쾌한 하나님 나라의 작전

인지를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모병하는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간절히 중보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주님이 친히 기획하시고 손수 행하시는 일에는 그 일에 동원된 일꾼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찬란했다. 물 떠온 하인들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을 받으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팔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앞에 섰던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과승하신 그 곳에 서있다. 약속의 땅, 그곳에 서있다. 여기고 맞은 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 우리가 기경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기 보인다.

"가라, 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 산당을 헐라.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민33:50-53)"

전쟁은 아름답고 황홀하며 위대한 것이다.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 오염시킨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전쟁하면 음란과 탐욕과 정욕에 노예 되었던 생명들이 돌아온다. 악함과 약함을 운명처럼 여기며 평생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회복된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복음기도동맹군들이여!

하나님 나라는 전쟁중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자.

조원순 선교사(복음기도동맹 사무국장)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아이들에게 주님으로 충분한 ‘그 생명’ 주고 싶어요.”

- 복음의 증인
백승영 집사(국제선교교회)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1년 넘게 아무런 직업 없는 백수로 지내던 백승영 집사. 최근 화물트럭 운전사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 회사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초리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굳어져 있던 직원들에게 이제는 백 기사에서 백 집사로 불리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다.



- 일터에서 백 기사에서 백 집사로 불리고 계신 대구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한테 전도지를 주는데, 잘 안보고 아무렇게나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죠. 하루는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났어요. 우리는 죽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음을 모르면 부활도 모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하는 아저씨 중에 정말 돈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돈 벌려고 결혼도 안하실 정도로 열심히시죠. 그런 분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돈 벌어서 무엇을 하실 거냐고 진지하게 물었죠. 인생의 갈급함이 없을 때는 그런 질문이 들리지 않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죽는 것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반드시 죽는다고. 그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싫어하시죠. 그런데 저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만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도 답답할꺼예요. 이런 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입밖에도 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 주님이 저를 이 사무실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예수 이야기만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신경 많이 쓰였죠.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 안쓰이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는 다들 저를 백 집사라고 불러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성경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아주 많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떠들고. 성경 보려고 하면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주여! 진짜 어떨 때는 그들 대화에 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어요. 한번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카드가 다 들어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무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기도 안하는구나?”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 안하는 걸 먼저 알더군요. 또 내가 잃어버린 지갑만 실제로 여겼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저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죠.”

- 복음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2009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전에는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에 위로나 받고 세상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가곤 했어요. 그러다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충격이었죠. 사실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이전

에는 들을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조건적인 기도생활이 전부였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복음을 만난 후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물으면 저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 다른 기도제목도 많았을텐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실 구할 것도 많았지만 구하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하루에 1시간 정도(?) 열방을 구하는 기도밖에 잘 못해요.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걸들다보니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고, 조직 문화에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열방기도하면 딱딱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하실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감정도 딱딱하고, 열방의 기도정보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알아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정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그러다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인지 더욱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무익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 기도 훈련을 받은 이후 지금은 어떠세요?

“감정은 비슷하데 믿음이 더욱 충만해졌어요. 여전히 딱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결론이니까. 주님 하실 것 믿고 구하는 거죠. 예전보다는 감정이 좀 더해지긴 했네요. 근데 감정이 결론은 아니잖아요.”

- 지금의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지하철 신문 팔이부터 구두닦이, 고물장사까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주로 했죠. 처음해보는 배농사를 5년 정도 해 봤어요. 집에서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열매가 맺혔고, 수익을 많이 얻게 되었죠. 정말 그때는 원 없이 벌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2009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그 말을 정리하게 되면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거기 계속 있었으면 복음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꺼예요. 이후 선교관학교,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거요. 복음을 만난 후 자꾸 복음의 가치에 부딪히니까 이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잡히지 않아서 아

예 선교지로 나가려고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제겐 그 자체가 자아를 추구하는 일임을 알게 하셨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죠. 그때 제게 통장에 잔고가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정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특별한 말씀은 없었어요. 계속 백수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 원했던 마음이 화물 주차장에 월 주차비를 내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개인사업자 같이 일을 할 수 있기에 택했어요. 그곳에서 일을 주면 일하고 안주면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믿음은 있었어요. 주님이 특별히 화물차를 운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조건이 필요하더군요. 그렇게 순종하다보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다시 멈춰설 믿음은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 한거예요.”

- 일을 하면서 어떤 은혜들이 있으셨나요?

“주님의 주권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예요. 제가 열심을 내면 힘들어요. 어느 때는 잠도 못잘 정도로 너무 바빠요. 어느 때는 일이 없어서 한가하죠. 주님의 주권을 많이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요. 내가 주님의 손아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죠.”

- 힘들지는 않으세요?

“쉽지 않죠. 백수로 살 때는 그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하니까요. 저희가 사는 곳이 경기 북부 지역인 포천이에요. 이 근처 공장마다 90퍼센트가 외국인이에요. 완전 열방 한 복판이에요. 아시아의 스리랑카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선교훈련 받고 사회에 나갔으니까 좀 깨어있었죠. 또 새로운 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가는 공장마다 말은 안통해도 악수하고, 너 예수 믿느냐 말도 걸어보고 물건 실을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 먹는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본연의 임무가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인데 나중에는 다 잊어 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생각만 들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삶이 전쟁터라

는 말을 실감하게 됐어요.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세상이랑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전쟁이에요. 창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더라구요.”

-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회속의 삶이 힘든 게 사실인데 계속 있으실 이유가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세상 한 가운데서 들어온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차피 복음은 살아야 하고, 여기서 아니라고 접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되돌리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이의를 따라 살지 않고 손해를 봐도 살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하지? 듣든지 말든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제 죽음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 앞으로 계획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은 저희 아들들이 열방이에요. 진호와 진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가 과수원할 때 부터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어서 아이들이 선교사 시킬까봐 두려워해요. 존재적으로 그런가봐요.(웃음)

큰 아들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해요. 배 말 할 때처럼 돈 펄펄쓰고 살던 때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드러내놓고 반항하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을꺼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아빠를 원할 텐데 검소하게 필요한 만큼 쓰니까 생활이 많이 축소 되는 것도 어려웠겠죠.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가 선교사 되길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길 원해’라고 말해 줘요. 그래서야 안심하더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지로 나간다고 늘 말했더니 아이들의 걱정은 그럼 우리 이젠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더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재산은 물려줄 생각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지 잡초 같은 생명을 받았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고 싶어요. 주님의 생명. 어디에 두어도 주님으로 충분한 그 생명주고 싶어요.”

다시복음앞에 지상중계 / 넷째날(16일)



왼쪽부터 송신호 목사, 이동휘 목사, 백부장 선교사, 류응렬 교수, 유기성 목사

“주님 한분에 만족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다”

다시복음앞에 첫째날부터 셋째날까지의 강의내용은 다시복음앞에 특별판 1~3호에 요약, 정리 게재됐습니다. 내용은 복음과기도미디어 웹사이트(www.gnmedia.org)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와 함께 죽은 자의 삶

송신호 목사(한국제자훈련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와 직접 관계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된다. 그렇다고 또다시 죄 짓는 것은 배신이고, 반역이다. 그런데 나는 반역을 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싶었지만 모든 사역의 주체가 나 자신이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를 높였다. 내가 죽어야 했다. 2천 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 '내 죽음'이 되어야 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다고 고백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다. 뇌막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 경험 이후부터는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하였고, 한 생명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제자훈련원을 통해 광고 한 번 없이 5만 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님이 하셨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지금 온 몸이 마비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하고 계신다. 죽었다고 패배가 아니다.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하셨고,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인가? 이미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대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구원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들은 선교사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게 되는가? 권능.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며 선교사 자격증이다. 권세는 신분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 한 마디로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권능을 주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다. 순서적 명령이 아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하고 외치지 말라. 오늘 땅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베드로,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8가지 유형의 선교사 사명이 있다. 첫째 해외선교사이다. PC방 아저씨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선교사.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모선교사이다. 셋째 기도 선교사. 후방에서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넷째 물질선교사. 안디옥 교회는 지금 70%를 선교비로 드린다. 다섯째 직장선교사. 단지 돈 벌기 위해 직장에 가지 말라. 여섯째 가족선교사. 가족 구원은 약속이다. 일곱째 문화선교사.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덟째 길거리 선교사.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를 본다.

예배와 선교

백부장 선교사

1989년 1월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A지역에서 10년간 사역했다. 사역하면서 폭풍을 만나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죽을 때 살아난다.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내가 죽고 내 안

에서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

B국으로 갔다. 현지어를 전혀 할 수 없는 기간, 언어를 배우고 잠잠히 기다리며 중보 하는 시간은 답답함이었다. 현지어 한마디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맘껏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기간을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배웠다. 삶 속에서 아픔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동이다.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선택, 거룩, 선교다. 먼저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에게 권할 권한이 없다. 둘째, 거룩한 삶이다. 십자가 복음 없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가 필요하다. 선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최종목적이다. 부르시고 ‘나 같이 살라’고 하셨다. 선교는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 곳을 소망의 땅이라고 부른다.

목숨 바칠 사명을 발견했는가?

류응렬 교수(총신신학대학원)

과연 기독교역사의 핵심에 복음과 기도가 있는가? 복음과 기도로 세상이 정말 변했는가?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가?

4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을 체험했다. 기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복음과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과 기도의 역사였다. 중세 천년의 흑암을 걷어 낸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 루터와 칼빈이 하고자 했던 일은 복음(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그리스도였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다.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이 한국에 일어났

다. 평양대부흥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복음과 기도였다. 전국 강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한 달이 되지 못해 전국에 불었고, 전국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흘렀다.

내 생을 무엇을 위해 던질 것인가? 딤후 4:1-8, 원문에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다. 십자가 복음이다. 인본주의적 복음이 결코 아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충분한데 땅 위의 것 중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영원한 태양이 다져가셨다. 태양을 본 사람은 눈이 멀어야 한다. 태양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를 바라보라(히12:2).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 처음엔 느끼고 싶어 체험을 추구했다. 그 때 갈2:20 말씀을 보게 되었다.

2007년 10월에 쓰러졌다. 병실에서 모든 게 다 캄캄했다. 하나님이 병실에서 나를 다루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전하는 말씀과 실제 삶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은 내 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도 시도해 보았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우들과 함께 실험을 했다. 일기를 쓰라고 도전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믿어지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 때부터 교회 안에 일기 쓰는 일들이 벌어졌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성일기를 쓰면서 성질까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다시복음앞에’섰던 복음기도동맹군들의 고백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복음 앞에서만 살거예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마치고 참석한 1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계층이 다양한 만큼 참여한 소감도 다채로웠다.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 복음앞에 서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유예찬(10) 어린이는 사뭇 진지한 고백을 했다.

“돌아다니면서 듣는 자유로운 집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살면서도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복음 앞에서만 살고 싶어요.” 연진모(11,영도교회) 어린이도 당찬 고백을 들려주었다.

이아름(21) 자매는 “저는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이 확 와 닿았어요. 중1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더욱 복음을 자랑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라며 솔직한 고백을 나누주었다.

한 40대 목회자는 “복음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외칠 때 성도들이 많이 물었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는지 이제 그 답을 알았어요. 내년 목회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겠어요.” 라며 기대에 찬 고백을 나누었다.



“기도24365 기도네트워크 지구촌 전역에서 가동중”

기도24365본부, 지구촌 기도네트워크 컨퍼런스 주최

기도24365 기도네트워크가 지구촌 전역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현지인을 위한 기도네트워크의 현지어 번역 및 섬김 시스템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24365본부가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지구촌 기도네트워크 기도24365 컨퍼런스에서 기도24365 기도사역이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인의 기도참여를 위한 기도정보 번역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도24365 국제본부가 위치한 요셉의창고(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K선교사는 지난 11월 중국어 기도사이트인 '다오가오(祷告)24365'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현재 중국어로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중보기도 사이트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초점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사이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

했다.

또 연합·연쇄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현장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지인을 위한 기도정보 번역 및 기도참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순회기도팀을 통한 비전나눔도 최근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 A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5년째 기도24365 기도자로, 또 동원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창기에는 자국 실정에 맞는 기도책자 편집과 기도자를 세우는 일일기도학교 이뤄져, 현재 약 200~300명의 기도자들이 11개팀으로 구성돼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내 기도의 동기를 잃고 기도를 힘들어 한다며 강요보다는 기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실제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을 섬기고 있는 전대덕 선교사는 “현장에서 훈련했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이 사역의 열매에 치중한 나머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간과하면서 기도에 눈을 뜨게 됐다”며 “지난 여름에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우연하게 참여하게 된 느헤미야52기도를 계기로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순회선교단과 열방기도센터, 티앤알미션, 복음과기도미디어 등 복음기도동맹 산하 단체 사역자들을 포함

3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문제점 대안들을 내놓고 토론했다.

한편, 기도24365의 공식 기도정보 책자인 '세계기도정보'는 현재 10여개국 언어로 번역돼 현장 선교사들의 참여로 기도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또 느헤미야52기도정보는 다섯 번째 기도정보 책자가 발간됐다. 이와 함께 순회기도팀은 현지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를 진행하며 현지인들의 중보기도 참여를 바라는 동기를 일으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오직복음으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마쳐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기도동맹군의 삶, 새로운 출발 기대

지난해 12월 13일~16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체인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에는 첫날 3천여명에서 매일 방문객이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1천여명이 늘어 주집회장 외 다른 장소에서 중계TV 영상으로 총 4천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저녁 메시지를 전한 김용의 선교사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신 날이 곧 복음을 완성한 날이었다며 이 복음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 바로 우리들도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부터 밤까지 총 15명의 강사진을 통해 총체적인 복음은 실재없이 전해졌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선포한 송천호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와 송신호 목사(한국제자연수원)는 ‘복음에 빛진 자’, ‘주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복음의 빛 앞에 참석자들을 서게 했고, 특별히 송신호 목사는 루게릭 병으로 인해 참석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강단에서 발음이 다소

어눌하나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 모든 이들을 울고 웃게 하는 시간이었다.

오전 강의를 이미 복음과 기도로 살아온 증인의 삶을 전한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회 국제선교동원본부장)와 정재현 집사(천마U.S.A 대표) 그리고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대표)를 통해 장소와 시간, 영역을 뛰어넘어 곳곳에서 이뤄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강통교회로도 유명한 이동휘 목사는 이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누구도 이 부르심에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이번 집회의 핵심인 복음기도동맹 행동강령을 해외에서 사역하는 3명의 선교사를 통해 현장이야기와 함께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가 중심된 삶을 전했다. 특히 행동강령은 문화행동 아트리를 통해 아침, 저녁 때마다 체조로 몸에 익혔고, 모든 참석자들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어린이와 같이 모든 동작을 따라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볼 수 있었다.

현금으로 운영된 이번 집회는 또한 700여명의 섬김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건

없는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들은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조건없이 연합하고 섬기며 행동강령을 따라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집회는 마치 군사들을 모병하여 훈련하는 군대처럼 모든 참가자들이 소대, 대대로 편성되어, 밥을 먹을때도 야전식 국밥, 잠을 잘 때도 깔판을 편채 선잠을 자기도 했다. 또 매 쉬는 시간에는 키맨(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창고지기)부스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자신이 서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설지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날 파송식은 이 집회의 주제이기도 한 요한복음 전체를 뮤지컬 ‘가스펠’ 공연을 통해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유기성 목사의 집례와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모든 순서자들이 나와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함께 선포하고, 전쟁하는 군사에 관한 아트리의 퍼포먼스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막을 내렸다.

청소년 복음수련회 훈련생 및 섬김이 모집

모집기간은 2012년 1월 1일까지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제 5기 청소년 복음수련회가 훈련생 및 섬김이를 모집한다. 일년에 두 번, 방학마다 열리는 청소년 복음수련회는 한의도 전도사(경일교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총체적인 복음이 선포되며 매년 다양한 교회에 소문을 통해 접수한 100여명의 훈련생과 섬김이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며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훈련원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훈련기간은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4박 5일간. 모집기간은 2012년 1월 1일까지이며 접수대상은 중학교 2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2012년 기준)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youthgnr> 나 전화 010-4264-4894로 하면된다. 섬김이는 복음학교 수료자나 청소년 복음수련회 수료자만 지원할 수 있다.

선교기자 및 통신문 모집
문의전화 : 070-7417-0408-10
gnpnews@gnmedia.org

「2012느헤미야52기도」 참가 신청받습니다!

한 회에 한 주간씩, 52주 연속, 연쇄, 연합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느헤미야52기도」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서는 일은 한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 집니다. 2012년 기도의 등불을 밝힐 느헤미야(기도주관자)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 신청 자격 : 교회나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교회, 단체 대표의 동의가 필요)
- 접수기간 : 순회기도팀 요청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요망

2012느헤미야52기도를 앞두고 ‘다섯번째 느헤미야52기도정보’가 출간됩니다(2012년 1월말 예정).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권 구입시 6,000원. 6권 전체 구입시 30,000원)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2012느헤미야52기도」 참여는 기도24365본부 웹사이트(www.prayer24365.org)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느헤미야52팀 ☎ 010-4192-4365, 070-7417-4366~7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으로 세워지고 섬김으로 확장된다”

‘창고의 문’을 여는 키맨으로 상담 부스를 섬기며

선교자원은행 선교단체인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리는 지난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 열린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기간 중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창고의 문을 열어 열방을 부요하게할 ‘키맨(Keyman)’을 모집했다. 집회 기간중 상담 부스(booth)에서 경제부문의 키맨으로 선교관심자들을 만나, 간증과 삶을 나눈 한 섬김이의 고백을 소개한다.(편집자)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생명으로 부활한 자로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것에 대해 결정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14:4-5)으로 키맨의 자리에 부르셨다. 머릿속에 없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기엔 늦었다는 생각과 나의 세상 가치관을 뒤로 하고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정말 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시작됐다. 함께 ‘키맨 부스’에서 섬기게 된 한 형제님을 만나 서로의 부르심을 나눴다. 그러던 중 주님께 올려드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 영역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도움을 청했고 흔쾌히 아멘으로 수락 해주셨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일의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 협력하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롬8:28).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연합이라는 주님의 전략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풍성한 ‘요셉의 창고’를 여는 키워드중 하나는 연합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키맨 부스에서 이뤄지는 상담 역시 연합의 힘과 함께 복음과 기도를 깨닫게 된다.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 역시 내가 고민할 영역은 아니었다. 마침내 부스는 열리고 동시에 밀어닥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대화를 나누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팽창력, 폭발력을 어떻게 참아왔을까?’ 궁금해 할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 상담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영역 가운데 필요가 아닌 복음과 기도였다. 상담하는 사람, 상담 받는 사람 모두 주님이면 충분했다. 이 섬김의 자리는 다시 연합의 자리로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으로 세워지고 섬김으로 재생산 및 확장 됐다.

이상호 집사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아프가니스탄, 그 50일 간의 여정』

“텅 빈 마음과 공허한 표정을 보며, 두려움을 넘어 기도하는 마음을”

지난 12월 13일~16일까지 진행됐던 ‘다시복음앞에’ 집회시간에 00국에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 전 읽었던 책이 생각났다. 교회서점에 둘러 책들을 둘러보던 중 유난히 눈이 가던 책이었다. 아프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인가보다 하며 지나치려했으나 시선이 그 책에서 떠나지 않았다. 책 뒷면에 본문을 요약해 놓은 글을 읽는 중 ‘배 목사님과 성민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프간 피랍. 그 사건이후 참 많이 궁금했다.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고, 기독교계에서조차 선교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위험한 지역에 가지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가서 사고가 났다느니하는 해야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누구도 무어라 답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또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은 놓을 수 없었다.

이 책은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팀원 중 한 명인 김윤영 자매가 피랍 후 50일간의 여정을 조심스러우나 두려움 없이 기록한 책이다. 4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감추어져 있던 비밀 같은 50일간의 여정을 일기를 써내려가듯 담담히 풀어냈다.

당시 20여명의 팀원들은 피랍이후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졌고 각각 흩어져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저 탈레반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현지인의 여러 집들로 끌려 다녔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탈레반의 거처가 아닌 아프간 서민들의 가정들로 데리고 다니며 2~3일에 한 집씩, 어떤 때는 10일 이상을 한 집에 거처하게 되었다. 죽음의 순간을 넘나들며 겪고 보게 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그녀의 눈과 마음 속에 적나라하게 담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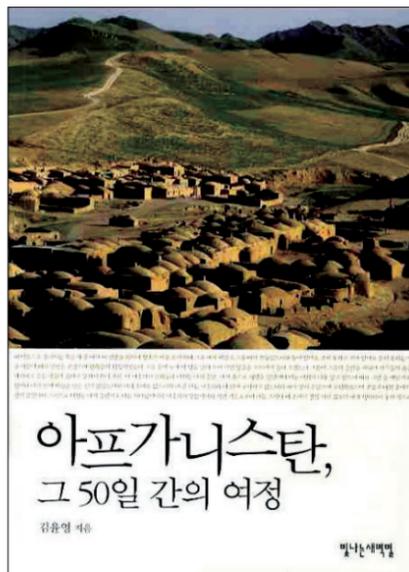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치 내가 아프간에 다녀온 것처럼, 그들과 생활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머릿속에 아프간의 풍경, 사람 등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섬세한 저자의 필체를 통해 주님은 그들의 삶과 마음을 그려내게 하셨다.

처음에는 적대감을 표시하던 이들도 함께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피랍된 대원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아프간 영혼들의 공허한 눈빛과 빈 마음을 보며 두려움을 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물론 직접 겪는 상황은 처절하고 불편하며 말할 수 없이 고통기도 했지만 주님의 눈을 통해 본 아프간 사람들의 삶과 종교와 현실은 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토해내게 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사 55:8)

철저히 감추어지고 폐쇄되어 있던 땅, 광야 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 그들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을 냈느냐고. 저자는 책 속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배 목사님과 성민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대신 저 수많은 아프간 민족, 그리고 탈레반을 형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랍 전, 배 목사님은 모든 팀원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다고 한다. 피랍 이후에는 허락된 권의 성경을 돌려가며 매일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묵상했다고. 주님은 50일의 여정을 통해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셨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다. 아프간 땅에 썩어진 밀알 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을 회복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 까지 쉬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간을 품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김윤영 저 | 342쪽 | 빛나는새벽별 | 값 1만2천원)

양승경 집사

후원자 명단

(2011년 12월 7일 ~ 12월 22일, 가나다 순)

△개인

고희숙 김기석 백이나 신형호 유자인 윤정미 이란영 이설옥B 이수아 임재아 무명X2

△교회 및 단체

금천중고신우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복음기도모임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 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 김송이(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의 제호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충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1-44
요셉의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